

나프타, 330-350달러 수준 안착?

국내 NCC 3월 구매물량 확보 ... 나프타 공급 Cargo 예상보다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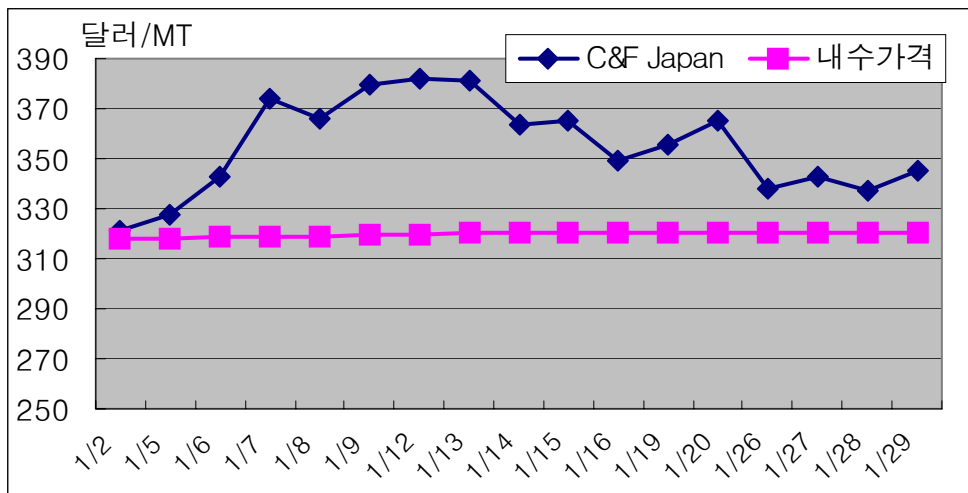
나프타(Naphtha)를 소비하는 국내 NCC(Naphtha Cracking Center) 가동 석유화학기업들이 3월 상순 구매물량을 확보해 아시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1월말 국내 NCC들이 3월 상순에 소비하는 나프타를 이미 구매해 나프타 공급부족 현상이 다소 해소됐다.

2004년 1월 극동아시아의 나프타 가격폭등으로 대륙간 공급선인 Arbitrage 공급물량이 12월 이후 100만톤 들어온 것도 나프타 수급타이트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 1월 4째주부터 아시아의 나프타 Cargo가 많아졌으며, 1월 공급 Cargo(2만5000톤)가 2대 추가돼 Spot 시장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극동아시아의 2월 나프타 공급계약이 거의 완료돼 2월 나프타 공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프타 가격추이(2004년 1월)



1월 9-13일 나프타 가격이 C&F Japan 톤당 380달러에 거래될 때 프리미엄도 40달러에 육박해 나프타 가격이 톤당 420달러에 거래됐으며, 1월30일에는 345달러에 프리미엄도 8-9달러로 하락했다.

1월28일에는 톤당 337달러로 1월 최고가였던 382달러에 비해 45달러 폭락했던 나프타는 Cargo가 나오기 시작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주로 유럽으로 나프타를 공급하는 Sonatrach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해 유럽의 나프타 가격이 다소 상승함으로써 C&F Japan 가격도 다소 올랐다.

1월29일에는 C&F Japan 톤당 전일대비 8달러 상승해 345달러에 거래됐으며, 국내가격은 1월29일 320.56달러를 나타냈다.

나프타 가격은 절대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유가격 하락세가 지속돼 2월에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월10일로 예정된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정례회의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이 힘든 상태이다. <김동민 조사연구원>